

윤남진 Review

안철수가 있을 줄은 몰랐던 책

대권의 향방을 캐다. 2012년 마침표인가, 시작점인가



〈고성국의 정치〉 고성국 지음 | 미지애드컴 | 2011. 06

집 앞에서 8시경 시내버스를 타고 나서부터 이 책을 집어 들었고 사무실에서도...

이처럼 속독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저자의 단언적 간결문의 미덕이겠지...

이 책의 부제는 〈2012 대선전망〉이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치평론 논객인...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한 의지와 비전’이 있었으며 YS와 DJ는 그것을 해낸 인물이라며, 2012년에는 그런 이슈로 질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필자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 저자가 박근혜 대세론의 강점을 먼저 분석하면서 표의 충성도와 확장성을 견비한 야권후보가 없이 대세론이 살아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다면 200 만 표 정도 차이가 났던 87년, 92년과 같은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가능성도 여기서 나온다.

‘마감하는 분기점’이라는 특성에서 그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자는 그러므로 야권은 ‘신(新) 40대 기수론’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판 자체를 흔들지 않으면 박근혜 대세론의 판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여야 모두 지도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2012년 총선에서 486(40대)을 수도권 전면내세워서 중원싸움에서 정면승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 대세론과 그것을 누가 어떻게 꺾 수 있을지를 구도 안에 들어오는 현실적, 잠재적 예비 주자들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다. 박근혜, 손학규, 김문수, 정동영, 오세훈, 유시민, 이재오, 문재인, 그 밖의 후보들로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이정희, 노회찬 까지.

그렇지만 그 애정은 만화가 ‘님의 침묵’에서 노래한 ‘날카로운 첫 키스’라는 표현처럼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들테면 ‘성찰과 하심’(정몽준), ‘비움과 진정한 기다림’(정세균)을 아픈 주 문하기도하고, 강소국 연방제 브랜드를 평가하면서 마지막 고별무대에서 가치를 위해 완주하기를 희망하는 처절함이 있고 (이회창), 대통령에 출마하여 생산적 정책 논쟁의 뉴스 메이커로서 야권연합의 폭발력을 배가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며(이정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두고두고 고통을 물고 올 심각한 내상을 입은’ 주자(노회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 그 소통의 철학과 주된 내용(정책)과 폭과 방식을 결정하는 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당선자에게 마음껏 하도록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오산은 없다. 모든 대권주자들은 현 정부처럼 주관적이고 일방적 소통방식으로 인해 촛불에 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일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력한 윤남진 NGO리서처 소장

출가한 밥값, 이 책에 담았다

정운 스님, 19종 경전의 핵심만 추려 ‘경전숏길’ 펴내



경전숏길 | 정운 편역 | 조계종출판사 | 2만4000원

경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곳에는 불교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8만 4000 법문이라 불리는 경전 가운데 내게 꼭 맞는 경전, 내가 찾는 경전을 만나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문득 부처님 말씀이 궁금해서, 혹은 답답한 마음에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위안을 찾으려 경전을 구하다가 그 마음을 그치고 마는 이유는 왜일까?

조계종 아사리(종단의 교육·연구 담당)이자 동국대 외래강사인 정운 스님(사진)은 최근 불교의 핵심경전 19권을 추려 뽑아 한권으로 엮어냈다.

신간 〈경전숏길〉은 〈붓다의 가르침〉 〈맨발의 붓다〉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등 다수의 저서로 대중에게 친숙한 저자의 책이다. 특히, 동국대 등에서 다년간 강의하면서 한 두 번 이상은 강의시간에 혹은 논문으로 학술행사에서 발표했던 경전들이기에 책의 깊이는 넓고도 깊다. 한

마디로 정운 스님의 이번 책 역시 쉽고도 유익하고 알차다.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한 것은 저자가 이 책을 두고 “이제야 출가한 밥값을 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 역작이기 때문이다.

“19종 경전 가운데 〈승만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문으로 한번 이상 다뤘던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권의 책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길은 정말 길고 먼 길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체취가 담긴 〈숫타니파타〉 >행복과 해탈의 길이 있는 〈법구경〉 >초기불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아함경〉 >부처님의 마지막 유행을 담은 〈열반경〉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 있는 〈육방예경〉 >서양 그리스인과 동양 비구의 문답을 기록한 〈밀린다왕문경〉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길인 〈마하반야바라밀다경〉 >견고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번뇌를 깨뜨리는 〈금강경〉 >재가불자의 청정한 삶의 모델을 제시한

〈유마경〉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 >불자의 아름다운 행원 〈보현행원품〉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그린 〈무량수경〉 >중생이 곧 부처라 강조한 〈법화경〉 >불성사상의 정수를 담은 〈열반경〉 >여인 성불의 가르침을 담은 〈승만경〉 >원융한 본성과 차별적인 수행의 조화로우움을 기록한 〈원각경〉 >북방불교 최초 경전인 〈사십이장경〉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한 〈불유교경〉 >이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인 부모에 관한 〈부모은중경〉.

저자는 19종의 경전마다 한문장의 요약과 더불어, 그리고 말했다.

“삶과 죽음의 초월을 통한 평온의 경지를 선행기에 부처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요, 가르침은 참된 삶의 나침반이다.”

저자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전이 무엇인가를 신중히 고민했다”며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승려로서의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맛보는 총명한 기쁨을 알았다”고 회고했다.

〈아함경〉에서는 목전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부처님 옆반에 아닌 존자가 눈물 흘릴 때는 함께 슬퍼했다. 법장 비구의 48대원에서는 한 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선재 동자의 구도 행각에서는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나기도 했다.



“길고 긴 머-연 길이였다.” 자비의 실천과 진리 탐구를 위해 혼신을 다해 정진 중인 저자가 책의 서문을 연 이 구절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돕기도 한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을 사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염두하고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책의 본문 24쪽 〈숫타니파타〉 중 조동섭 기자

보았다고 하면 바로 눈이 먼다



간저축합(看著則勝). 보았다고 하면 바로 눈이 먼다는 뜻이다. 이는 ‘이렇다’고 특정 짓거나 한정지었을 때 그것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禪)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 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눈길이 머물러선 안됐다고 했고, 말의 길이 끊긴 곳에 도(道)가 있다고 했다. 유교에서도 질분도설이라 해 어떤 개념의 7할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 인식했다.

인간의 의사표현의 대부분이 언어에 의지하는 까닭에 도는 말과 글의 언저리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다.

〈선어사전〉은 도와 깨침이 기우거리는 말을 풀어낸 책이다.

동국대 석학과 교수인 저자 해원 스님은 “선문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언어에 대한 명료한 이해 없이는 선사상과 선종사를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선문답에는 일반 언어부터 속어 언어 방언 등이 두루 섞여 있다. 당시의 트렌드가 녹아든 은유적 용어도 있다. 선어록 연구에 일찍부터 전착해 온 저자는 일본 선학자

아키즈키 료민의 저서를 번역한 〈선종어록 읽는 방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언어를 통한 선열(禪悅)을 선사하기도 했다.

책은 학문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의 사전이기보다 선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선 입문서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유니버스 형식의 선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책은 단행본 읽듯이 앞에서부터 편하게 읽어 나가도 되고, 필요에 따라 혹은 마음 가는대로 책을 펼쳐 군데군데 읽어도 좋다.

책은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사족을 줄이고 선어가 갖는 문자적 의미와 배경, 본질적 의미 등을 간결하게 전달해 놓았다.

부록으로는 선 관련 등사·어록과 한중일 선사상 관련 연표와 동북아 선 관련 지도, 선종 법계도 등도 담아 선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저자가 모아 놓은 선어를 읽다보면 어느새 당신은 적정(寂靜)의 경계(境涯), 격을 초월한 참된 자유로움, 명리를 초월한 탈속의 경계, 선사들의 맑고 푸른 깨달음의 향기, 정풍명월의 여유로움 등을 만끽하게 된다.

선어사전 | 해원 편저 | 운주사 | 2만3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10 Buddhist books including '기도 (내려놓기)',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etc.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Advertisement for '선문염송 17권' (선문염송 17卷) by Seonwo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details about the collection.

Advertisement for '20년 오랜습씨 탕화불상에속원 갈상' (20년 오랜습씨 탕화불상에속원 갈상) featuring Buddhist statues.

Advertisement for 'EASY GOLD' (EASY GOLD) tea, highlighting its benefits and ease of use.

Advertisement for '다영보이' (Dayoungboi) tea, featuring various tea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